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지금 자유롭지 않다면

언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 기회는 매우 희귀함을 알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르마를 수행하는 것이 너무도 좋아. 그러나 당분간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첫째로 나는 가정을 돌봐야 하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줘야만 해.”

그러나 지금, 아직 인간의 몸을 지녔을 때, 당신은 다르마를 따를 자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왜 미루십니까? 당신은 보다 나은 조건이 다음 생에 올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당신은 완전히 윤회계의 고통에 잡혀 있거나, 삼악도에 연속돼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그냥 보내 버린다면 잔혹한 윤회계의 굴레를 벗어나는 기회를 허비할 겁니다.

연회가 벌어져 맛난 음식이 당신에게 제공됐을 때 그것을 맛있게 먹으세요. 달마의 시계가 정오를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활발한 종책질의, 달라진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달라졌다. 입법기구 이면서 중앙종무기관의 견제체인 본래의 모습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종회였기 때문에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존의 무기력했던 종무보고와 종책질의가 아닌 활발하고 날선 의원들의 종책질의였다.

특히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종회 부의장)은 주지 미임명 사찰 현황과 직할 교구 활성화 방안을 질의하며 종단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법안 스님의 질의를 통해 총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지 품신이 올라오는 않는 공찰은 56곳, 사설사암 474곳이었으며, 포교소도 50곳으로 총 580곳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지만 조계종 총무부는 제29조 사찰법에 의해 관리 대상 사찰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법안 스님은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은 2400곳이다. 이중 20%에 달하는 주지 미품신 사찰이 580곳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방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 관리 모법(母法)인 사찰법은 완벽하게 규정돼 있다. 당해부서와 교구가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 스님은 직할교구가 교구제 변화의 물모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직할교구 관리는 현재 국장 1명과 직원 4명이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민원해결도 이

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할교구를 독립시켜 자기 완결 구조를 가지게 하고 최종적으로 분구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영담 스님은 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자성 과쇄신결사추진본부·아름다운 동행·조계종 출판사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에 대해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종무보고에서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치중된 포교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계종 사찰 중 580곳

주지 미임명...관리 허술

동행 등 재정 문제 제기

이벤트성 포교 행사 지적

불교광장·3자연대 대립각

잇달은 참회 발원도 눈길

법안 스님은 “포교원은 이벤트 행사만 한다. 제대로 교구본사에서 학생 포교를 하는 지 일일포교를 하는지 정책 전반을 살펴야 한다”며 “위에서 종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보급해도 아무리해도 안되는 것은 교구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충고했다.

신도 조직 포교에 대해 원학 스님은 “포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제 19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회는 날선 종책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교는 모든 종도들의 관심사다. 여러 포교 방법이 있겠지만 조직 포교가 중요하다. 중앙-교구-말사로 이어지는 탄탄한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일선 사찰 스님들의 포교 마인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포교원 스스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종법 장치를 종회에 올려야 한다. 현재 포교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스님은 “더 이상 교구 신도회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조계종 신도 조직 정책에 대한 변화를 도모할 시기다. 이에 대한 논의를 포교원 차원에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활발한 종책질의가 이어졌지만 인사안과 의사일정 변경 등 몇몇 사안에서는 불교광장과 3자연대의 대립이 나타났다. 하지

만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점은 문제였다.

실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지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표결로 결정이 났으며, 인사안에서도 대립이 이어져 조정되지 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잇달은 참회도 이번 종회의 변화였다. 회기 기간 중 왕왕 문제를 일으켰던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여론의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었지만, 이번 종회에서는 발 빠르게 참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중앙종회는 비판과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한 회기였다. 이 같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변화 이렇게

조계종 교육원, 19일 동국대서 연찬회 교육 교역자들 제언 통해 방향 모색

“기본교육과정에 범망경보살계, 사미율의, 식차마나니계 등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경전이나 고서들이 한문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한문 문장구조론 등의 지침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사찰승가대학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교역자 스님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9일 동국대에서 ‘2013년 사찰승가대학 교육교역자 연찬회’를 열고 표준교육과정의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승가대학장과 학감, 교수, 교수아사리 등 60여명의 교육교역자 스님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내놨다.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중 ‘강의수 및 필수·선택과목’에 대해 교육 교역자 스님들은 “초기불교 이해와 초기불전이나 선학 개론과 간화선의 이해 등 비슷한 과목은 중복되니 통합해야 한다”, “교과목이 다양해 교재비가 많이 들기에 종단에서 학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다.

‘교과목의 학년별 배치’에 대해서는 “1학년 2학기 ‘율장과 대승계’는 무거운 계율과목으로 ‘개울학개론’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1학년 1학기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2학년 1학기의 ‘종단과 현대승리’를 3학년에서 가르쳐야 한다” 등의 제언이 이어졌다.

연찬회에 앞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표준교육과정 개편은 스님으로서 기본을 갖추는 교육인만큼 종단적으로도 승가대학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점들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면 논의하여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원은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전체 기본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내년도 교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송광사승가대학장 도담, 동화사승가대학장 양관, 봉녕사승가대학장 도해, 동화사승가대학장 행오,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운문사승가대학장 흥륜 스님 등 학장과 학감, 교수스님 44명과 교수아사리 16명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참여불교재가연대 ‘조계종 선거법’ 심포지엄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1월 28일 조계종 ‘선거법’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불교의 현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재가연대는 두 번째 순서로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우리함께빌딩 2층 만해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계율의 현대화: 대중공사와 조계종 선거법’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재가연대는 앞서 지난 6월에는 ‘첨단과학기술의 지혜로운 소비’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범응스님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김형남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심포지엄은 종법과 선거법의 변화 방향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3년 12월 27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